

# 여론 등 돌리자... 쿠팡 “판매상품 관리강화·갑질 사전방지”

물류센터 지원 등 대책 마련  
육일기 관련상품 즉시 판매중단  
배달앱 악성리뷰 해명기능 도입

익일 배송 서비스 ‘로켓 배송’으로 고  
속성장하며 몸집을 키워나간 쿠팡이  
여론의 못매를 맞고 있다.

최근 경기도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사고와 쿠팡이츠의 ‘새우튀김 갑질 논란’으로  
근로 환경과 안일한 후속 대처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육일기 관련 상품까지 판매된  
것으로 드러나며 사면초가에 몰렸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22일 오전까지 쿠팡  
에서는 육일기가 그려진 스티커와 우  
산 등이 판매됐다.

쿠팡의 일본 관련 논란은 이번이 처음  
이 아니다. 지난해 12월 쿠팡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살 공격을 한  
일본 특공대인 ‘가미카제’ 관련 상품이  
팔려 논란이 됐다. 또 ‘육일기’라는 직  
접적인 단어 대신 ‘히노마루’(일본 국  
기) 등 유사한 단어로 버젓이 상품이  
판매되기도 했다. 이에 쿠팡 측은 “문  
제가 된 상품은 자체 판매하는 상품  
이 아닌 오픈마켓 판매자가 해외 배  
송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이라며  
“즉시 판매 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뉴욕 증시에 상장한 쿠팡은  
글로벌 시장까지 진출하며 사세를  
확장하고 있었다. 올 1분기에만 쿠팡  
이용자



23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사무소에 마련된 쿠팡 화재 피해지원센터 현장접수처 모습.

수가 1604만명으로 집계됐고, 이는  
국내 인구의 30% 정도다. 하지만,  
17일 새벽 발생한 덕평물류센터 화재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

물류센터화재가 발발한 시점에서  
김범석 창업자의 대표이사 사임이 발  
표되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냐  
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탈퇴 움직임이  
시작됐다. 19일 기준 약 17만명이  
쿠팡 탈퇴 관련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에 올라왔다.

쿠팡은 이에 “김범석 창업자의 의  
장직사임은 미리 정해져 있었던 사  
안”이라며 “지난달 말에 확정된  
내용을 이날 발표한 것일뿐, 화재  
사고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들과 물류센터 직원들  
에게 지원책을 마련한다고도 전  
했다. 특히 1700여명의 직원들에게  
는 근무할 수 없는 기간에도 급여  
지급과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환배  
치도 약속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2일 서울 쿠팡 본사 앞에서 ‘블랙리스트에 영선하는 쿠팡이츠 등 배달앱 리뷰-별점 제도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쿠팡은 육일기 판매, 쿠팡이츠 ‘새우  
튀김 갑질 논란’ 등 연이어 터진 이슈  
에도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쿠팡은 육일기 관련 상품 판매와 관  
련해 즉시 판매 중단 조치는 물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새우튀김 환불 요구로 스트레스를 받

던 점주가 사망한 ‘새우튀김 갑질  
논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처  
방안을 내놨다. 쿠팡은 22일 ▲점주  
보호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전담  
상담사 배치 및 교육 강화 ▲악성  
리뷰에 대한 해명 기능 도입 ▲음  
식·배달 만족도 평가 업그레드 ▲  
갑질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목소리  
경청 등을 통해 갑질을 미연에 방  
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이어 터진 악재에 이용자들의 시  
선은 굽지 않다. 매출 늘리는 데에만  
급급해 노동자 인권 보호와 기업이  
가져야 할 사회적 책임은 등한시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로 쿠팡이 사회적  
책임을 중요시하는 기업이 되  
길 바란다고 입을 모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쿠팡 탈퇴가 일  
시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업  
계 한 관계자는 “불매운동이 지속  
되려면 그를 대체할 대체재가 있  
어야 한다”며 “하지만, 국내 이커  
머스에 ‘로켓배송’을 대체할 빠  
른 배송이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탈퇴가 이어지더라도 곧 다시 소  
비자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싶다”  
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쿠팡을  
강하게 압박할 수 없는 게 지역  
마다 대규모 (쿠팡)물류센터가  
있지 않다.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쿠팡이 기여한 것이 사실”  
이라고 덧붙였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가전업계, 반도체·원자재 부족 예의주시 “사태 장기화시 가격인상 불가피”

일부 IT기기 출고지연·가격인상  
“올해는 버터도 내년엔 공급조절 고려”



HP는 최근 크롬북 가격을 15% 가량 인상했다.

가전 업계도 반도체·원자재 부족 사  
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아직까지  
는 별다른 타격이 없지만, 부족 현  
상이 장기화되면 출고 지연이나 가  
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노트북 등 IT  
업계는 최근 들어 노트북과 프린  
터 등 가격을 인상했거나 인상을  
검토 중이다.

반도체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은 영  
향이다. 반도체 가격이 수급불균  
형으로 빠르게 오르고 있는 상황  
에서, 반도체 비중이 높은 IT 기  
기들은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결정하고 있다.

일단 국내 가전 업계는 아직 영  
향을 받지 않고 있다. 당장 가격  
인상이나 유통업계 프로모션 축소  
계획도 없다. 재고를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덕분이다. 고급 TV 등  
일부 제품에서 출고 지연이 있  
긴 하지만, 반도체와 원자재 공  
급 문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설  
명이다.

가전이 상대적으로 반도체와 원  
자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업종이  
라서다.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반도체 비중이 낮고, 플라스틱 등  
소재를 주로 사용해 철강 의존도  
도 높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올해까지  
재고는 확보된 상태로, 가격 인  
상이나 프로모션 축소와 관련하  
는 논의는 없었다”며

“일부 제품에서 있는 출고 지연은  
반도체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운  
송 문제가 더 크고, 그마저도 일  
부 국가에서 생산한 모델에 국  
한된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가전 업계가 사태를  
예의주시하는 이유는 반도체와  
원자재 부족 현상이 잠잠해질 기  
미가 보이지 않아서다. 당장 올  
해까지는 큰 문제 없이 버틸 수  
있겠지만, 새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 내년부터는 가격 인상이나  
공급 조절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중국에서는 가전 제품 가  
격 인상이 현실화됐다. 이미 중  
국 샤오미가 가격을 올리기로  
했고, 다른 업체들도 뒤를 이을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격에 민감한  
가전 업계 특성상 쉽게 가격을  
올리기는 어렵다. 업체들간  
최대한 가격을 유지하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  
고 나서야 비로소 가격 인상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용 기자 juk@

**제8회**  
The 8th Muan Redclay Tidflat Festival  
**무안항토갯벌**  
**온라인축제**  
2021. 6. 23. 수 ~ 27. 일 / 5일간  
www.무안항토갯벌축제.com

온라인 LIVE STREAMING

무안군 MUAN-GUN

무안군축제추진위원회